보도 시점

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/ 산업통상자원부	공동보도자료	2014. 11. 20(목)	
		작성·문의	국무조정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실 과장 한성진 / 서기관 백경동 (Tel : 044-200-2217)
			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실 과장 문신학 / 사무관 이영주 (Tel : 044-203-5326)
11.21일(금) 10:2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배 포	국무총리비서실 공보협력비서관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(Tel : 02-2100-2183)

정홍원 총리, "울진군과 한수원 합의는 상생발전의 새로운 이정표"

- 21일, 울진군과 한수원 '신한울 원전 건설관련 8개 대안사업 합의서' 서명식에 참석
- 정 총리, "우리의 열악한 부존자원 등을 고려하면 원전은 불가피한 선택"
- "국가 에너지 정책을 이해하고 원전 부지제공에 적극 협조해준 군민들께 감사"

□ **정홍원 국무총리**가 **21(금)** 오전 **원전 건설 중인 울진군**을 방문, 군청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(이하 한수원)과 울진군 간 「**신한울 원전 건설 관련 8개 대안사업 합의서**」 **서명식에 참석**하여, 군민들에게 직접 **감사의 뜻을 전하고** 관계자들을 격려했다.

○ 정 총리는 축사에서 "이번 합의는 지난 **1999년부터** 오랜 기간 **어려운 협상 끝에 일궈낸 값진 성과**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"면서, "우리나라 에너지 수급과 지역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**'상생발전의 새로운 이정표'**가 될 것"이라고 강조했다.

○ 이어 "울진군은 기존 6기의 원자력발전소에 더해 현재 신한울 1, 2호기가 건설 중에 있으며, 앞으로 3, 4호기가 더 들어설 예정"으로, "2022년경이 되면 모두 10기가 가동되어 우리나라 원전 발전량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"면서,

○ "어려움 속에서도 국가 에너지정책을 이해하고 **원전 건설부지 제공 등에 적극 동의해주신 덕분**"이라며 **군민들의 협조에 감사의 뜻**을 전했다.

○ 정 총리는 또 **"우리의 열악한 부존자원과 제조업 중심 경제구조, 온실가스 감축의무 등을 고려할 때 원전은 불가피한 선택**"이며, "지난 1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원전 비중을 2035년 기준으로 29% 수준으로 설정한 것도 이 때문"이라면서,

○ "이처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**원전과 같은 시설을 유치하는 지역**에 대해서는 **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**가 있어야 한다"고 강조하고, 앞으로도 **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**"고 약속했다.

□ 이날 서명식은 한수원과 울진군이 15여년간 타결하지 못했던 **신한울 1~4호기 건설 관련 지원에 합의**함에 따라 이뤄졌다.

< 합의서 서명행사 개요 >

· **일시 / 장소** : '14.11.21(금) 10:20~10:35 / 울진군청 대회의실

· **참석자** : (서명자) 울진군수, 군의회의장, 한수원 사장
(임석자) 국무총리, 산업부 장관, 강석호 의원
(참석자) 주민대표, 지역 언론사 등 100여명

· **8개 대안사업** : 북면종합계획을 포함한 울진군이 요구한 지역종합사업

· **주요 합의 내용**
- 한수원은 8개 대안사업 일괄타결 지원금액 2,800억원을 울진군에 지급하며, 사업의 수행 주체는 울진군으로 함
- 울진군은 신한울 1~4호기 건설사업에 협조

· **기대효과**
- 이러한 지원금은 향후 울진지역의 SOC, 주민편의·복지시설 등에 대규모 투자됨으로써, 국가의 핵심적인 전력 공급원으로서의 울진군의 위상제고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

□ 울진 방문을 마친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원전 건설예정지인 영덕군을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.